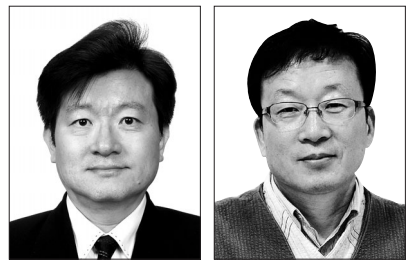


이재성 부산대 교수 원효학술상 대상 선정

진흥원, 7회 수상자 발표... 이도흙 교수 특별상

이재성 부산대 영문과 교수가 제7회 원효학술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4월 21일 종합 심사회의를 제7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이재성 교수



이도흙 교수

교수부문 대상에는 이재성 부산대 영문과 교수의 영문 저서 <Postmodern Ethics, Emptiness, and Literature: Encounters between East and West(포스트모던 윤리학과 공, 그리고 문학: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영예를 안았다.

이재성 교수의 영문저서는 “포스트모던 윤리학과 선불교를 중심으로 한 공(空)과 무아·불이 사상을 비교하는 대담하고 참신한 시도를 보인 역작”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원효의 화경과 마르크스 사상을 현대적으로 풀이해 많은 주목을 받은 이도흙 한양대 국문과 교수의 저서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는 교수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도흙 교수의 저서에 대해 “현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원효와 마르크스의 두 관점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진단했다”고 평가했다.

비전임 교수 부문 대상에는 이창숙

前 동국대 강사의 <불교의 여성성불 사상>이 수상했다. <불교의 여성성불 사상>은 현실적이면서도 참예한 화두인 여성 성불을 매우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 부문은 은상에 송남주(고려대 대학원 철학과)의 논문 ‘사사무예에 관한 고찰 - 징관의 사법계(四法界)설을 중심으로’, 동상에 이화순(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의 논문 ‘내담자 친화적 명상심리 상담을 통한 파산자의 심리적 변화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3일 오후 3시 서울 마포 다보림빌딩 3층 법당(다보원)에서 개최됐다. 교수부문 대상에는 1000만원, 특별상과 비전임교수 부문 대상에는 각각 500만원, 학생 부문 은상에는 250만원, 동상에는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신성민 기자

韓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진정성’ 필요

등재추진위, 4월 29일 3차 국내학술회의 개최

불교계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전통산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선행과제로 ‘진정성(Authenticity)’을 꼽았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국제적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 주문됐다.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의 전통산사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3차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의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마련한 이날 학술회의에서 이해는 동국대 교수(사단법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위원장)는 ‘연속유산으로서 한국 전통산사의 진정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전통산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부각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진정성은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해주는 요건”이라면서 “한국의 전통산사는 살아있는 유산인 만큼 진정성에 대한 기준도 전통산사가 지닌 특수성에 기초해 진실하게 기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7개 개별 사찰이 아닌 연속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이 교수는 역설했다. 이 교수는 “사찰 하나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등재하고자 하는 ‘한국의 전통산사’라는 제목에 맞게 등재요소가 되는 7개 사찰 전체를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7개 사찰이 세계유산 등재신청유산으로 선정됐는지”를 국내 비교연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의 전통산사 보존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7개 개별 사찰 각각 특성 아닌

연속유산으로 등재 이유 찾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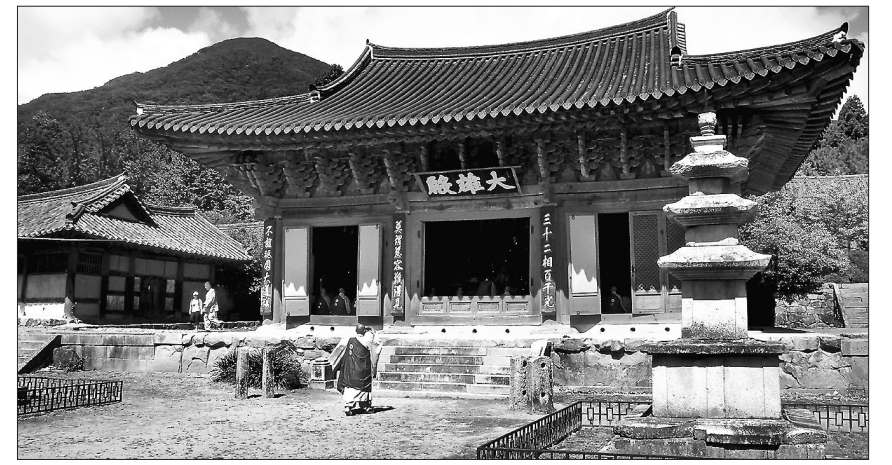
통합관리 등 국제 기준으로 접근

7개 사찰에만 유형유산 4만여 점

“한국 고유의 불교 가치 내포해”

이동주 백제고도문화재단 고도유산부장은 발제를 통해 통합보존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알렸다.

이 부장은 “연속유산에 있어 통합보존관리시스템은 ‘유산의 구성요소 및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 체계’와 ‘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들간의 협력 및 갈등 조정’의 역할이 부여된다”면서 “이런 조직 구성 계획은 등재신청서에도 수



순천 선암사의 전경. 선암사를 비롯한 7개 사찰은 ‘한국의 전통산사’라는 연속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록돼야 하며, 각 사찰별 보존·관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장은 “한국의 전통산사 보존관리는 국내적인 시각이 아닌 국제적인 시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전통산사’의 유·무형유산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경미 등재추진위원회 사무국 책임연구원은 전통산사의 유형 유산의 가치에 대해 말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추진 중인 7개 사찰의 조각, 회화, 건축 등 유형 유산은 42,773점에 달한다. 이 같이 수많은 유물들이 사찰 전각의 배치, 경관과 어우러지며 한국 불교만의 고유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안에 봉안된 부처와 불화는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러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조물이 조성됐다. 이 같은 점에서 한국의 산사가 가지는 특수성이 이해돼야 한다”면서 “불화와 불상은 건조물의 건립 및 중수시기와 시대적 특성을 공유하면서 전통 산사만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안동 불정사, 영주 부석사, 양산 통도사 등 7개 사찰은 2015년 12월 28일 2017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됐으며, 현재 2018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아시아 대학들 불교학 논하다

동국대 등 4월 21~22일 북경서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 명문 대학들이 모여 각국의 불교학 성과를 발표·교류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북경대 영결교류센터에서 제2회 동아시아 4개 대학 불교학 국제학술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제학술회의에는 동국대 불교대학 및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을 중심으로 북경대 철학과, 동경대 인도철학 불교학과, 대만대 불학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동아시아 사회의 종파불교와 지역 전통’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중국 각지에서 학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명의 발표와 함께 토론이 펼쳐졌다.

동국대에서는 불교대학 교수이자 정각원장 혜원 스님이 ‘한국의 간화선과 운문선의 특징’을, 김천학 HK교수가 ‘해동화엄의 특징’을 주제로 발표했다. 북경대에서는 예사오용(葉少勇) 교수가 ‘이제설의 발전’을, 마빙타오(馬炳濤) 선생이 ‘명말기의 천대 역사서’에

대해 발표했다. 동경대에서는 시모다 마사히로(下田正弘) 교수가 ‘대정신수 대장경 간행으로 본 현대 불교학의 공헌’을, 미노와 켄료 교수가 ‘일본 불교에서의 종(宗) 개념의 발전과 변화’를 발표했다.

대만대에서는 두바오루이(杜保瑞) 교수가 ‘〈육조단경〉의 고전적 영역과 이론적 창조’를, 차이야오밍(蔡耀明) 교수가 ‘대승불교의 공성과 구도변환’을 발표했다.

김중욱 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인문 네트워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동아시아 불교학의 미래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단순히 학술회에서 그치지 않고 현지 고적 답사 등을 통해 불교에 대한 안목을 확장시키는 역할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 4개 대학 불교학 국제학술회의’ 3회차는 2년 후 대만대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4회차 4년 후 동경대에서 개최된다.

신성민 기자

17세기 佛母 금문 스님 생애·작품 조명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

불교미술학회 세미나서

봉덕사 목조불상 조사통해

활동연대·작품 등 명확해져

17세기 활동한 조각승 금문 스님의 생애와 작품 활동 등을 비교·분석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4월 9일 양산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열린 불교미술학회 학술대회에서 ‘안성 봉덕사 목조여래좌상과 조각승 금문’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이 중요한 것은 6년 전에 안성 칠장사 명부전 불상 조사를 계기로 금문 스님에 대한 존재가 확인된 이후 추가로 조사·발굴 성과를 내었기 때문이다.

최 위원은 2013년과 2014년 안성 봉덕사 목조여래좌상과 원주 구룡사 심검당



안성 봉덕사 목조여래좌상. 17세기 조각승 금문이 조성한 것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사진제공=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

목조보살좌상을 조사하면서, 이들 불상들이 금문 스님의 작품임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금문 스님의 활동 시기와 불상 양식 등이 명확해졌다는 것이 최 위원의 주장이다.

최 위원에 따르면 금문 스님은 1635년

경에 태어나 출가한 후 수련기를 거쳐 혜희와 1655년에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불상과 1662년에 순천 송광사 관음전 보살상을 조성하고, 1666년에 수화승으로 안성 봉덕사 봉안된 불상을 제작했다.

또한 금문은 1668년에 수화승 승일과 김천 직지사 비로전 불상을, 1676년에 수화승 혜희와 완주 안심사 화장암 불상(김제 금복사 봉안)을 제작했다.

금문 스님의 마지막 기년명 불상은 1706년에 안성 칠장사 명부전 불상으로 조사됐다.

최 위원은 “금문 스님은 주로 혜희와 불상 제작에 참여하고, 혜희가 1650년대 살았던 충남 공주 계룡산 근방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충청도 사찰이나 암자에 불상을 제작했다”면서 “1703년 이전에 종2품(從二品) 문무관의 품계에 해당하는 ‘가선(嘉善)’의 공명첩을 이름 앞에 쓴 것으로 보아 국가적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에서 발급한 공명첩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매장문화재 발굴 기간 준수 의무화된다

문화재청, 관련 규정 개정

문화재청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4월 27일 일부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발굴조사 규정에 따르면 발굴기관의 발굴조사 기간 준수가 의무화되고, 매장문화재 보존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에 ‘공·사익에 미치는 침해 정도’가 신설됐다. 또 보존하도록 조처된 발굴 유적의 재평가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아울러 대형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굴조사 부분 원료의 횡수 제한이 폐지됐다.

지표조사 규정에서는 지자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하거나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존을 지시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신성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 250W
 - 350W
 -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앰프 구성 : 스테레오 앰프 3000원 1대, 소용 믹서 5개급 1대, 탁상형 쿼츠헤드 마이크 1대, 시애틀 마이크 스텐드 1대, CD기 1대,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YD-675 핸드 마이크 1대,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세트,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내믹 마이크

- V-620 : 65,000원
-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김민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 음향연구자,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강원도 : 019-3 9 6-1110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든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산업 지붕 공사